KIEP 지역경제 포커스
REGIONAL ECONOMIC FOCUS
2013년 2월 14일 | Vol. 7 No. 4
ISSN 1976-0515

최근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과 시사점

강대창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dkang@kiep.go.kr, Tel: 3460-1166)
김유미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ymkim@kiep.go.kr, Tel: 3460-107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ttp://www.kiep.go.kr

차 례

1.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배경
2.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2013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융산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합된 독립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OJK: Otoritas Jasa Keuangan)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함.

-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조치(措置)를 취하였지만, 영역별 금융감독체계로 인해 감독 공백이 나타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임.

▶ 재무부 산하 자본시장감독청(Bapepam)이 담당한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와 중앙은행(BI)이 담당한 은행산업 규제 및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여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감독이 가능하도록 함.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의 역할은 금융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하고, 금융안정화 체계를 구축하며, 금융시장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

▶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융안정성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 하지만 단기적으로 1) 금융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및 금융전문가 부족 2) 금융감독 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 증가 3) 제도적 확립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함.

-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성공하도록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정책 자문에 중점을 두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1.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체계 개편 배경

■ 2013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OJK: Otoritas Jasa Keuangan)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함.

- 금융 부문과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급증, 금융불안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효과 미비, 분리된 금융감독체계로 인한 감독 공백을 고려하여 감독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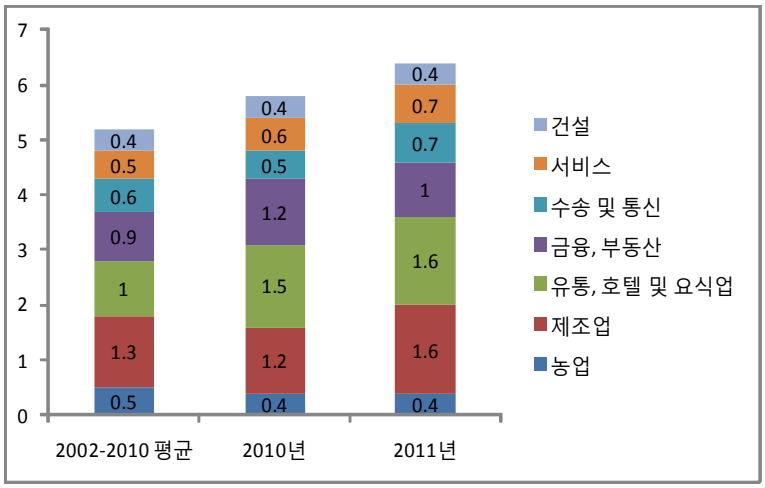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 부문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외의존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또한 향후 급격한 외자 유출 시 금융불안정이 염려됨.

- GDP 대비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금융 부문과 부동산 부문에서 높은 성장세가 나타남(그림 1 참고).

ㅇ 2011년 인도네시아의 은행산업 이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은행의 평균 여수신 금리 마진은 동남아시아 다른 은행들의 거의 두 배 수준인 6.1%포인트를 기록함.[1)]

그림 1. GDP 대비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였고 향후 대외경제에 따른 외자 유출 시, 금융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그림 2 참고).

ㅇ 특히 2012년에 금융 부문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증함(그림 3 참고).

1) 금융위원회(2012),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협력 강화 방안』(미발간).

그림 2. 분기별 인도네시아 자본수지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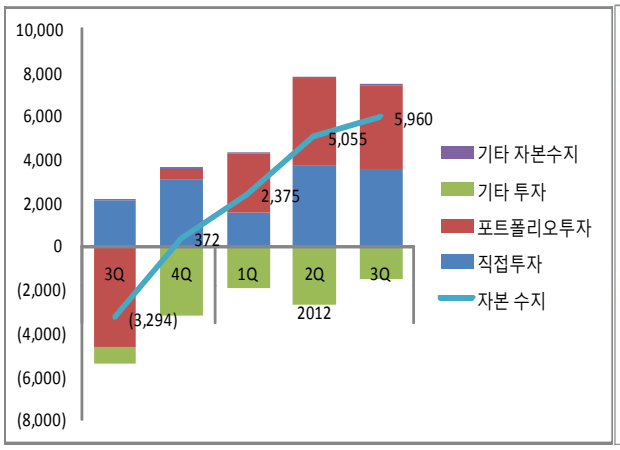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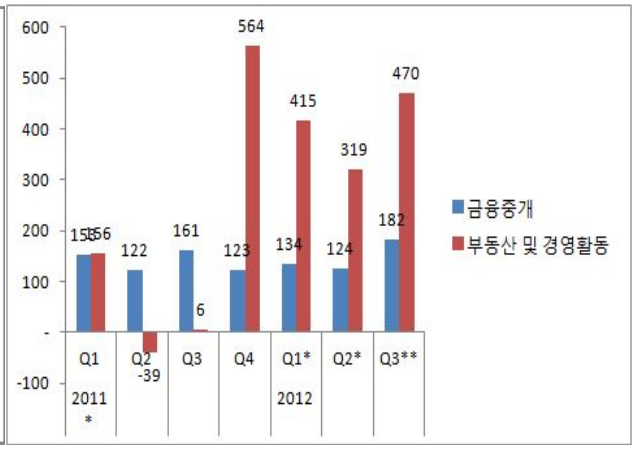


그림 3. 금융산업에 대한 분기별 대인도네시아 FDI

(단위: 백만 달러)



주: * 측정치, ** 추정치.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외국자본 유출로 인한 금융불안정이 발생한 1997년 외환위기 경험을 고려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 1997년에 인도네시아로 들어온 외국자본의 많은 부분이 은행을 거쳐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었는데, 특히 국영 상업은행들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저리대출이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 된 바 있음.

- 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외국인에 대한 채권 및 주식 발행시장의 개방 축소,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기준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금융감독의 어려움이 나타남.

■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은 영역별로 분리된 금융감독체계로 인해 감독 공백영역이 존재하고, 중앙은행이 국영은행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드러남,

- 현재 은행산업과 자본시장을 각각 중앙은행(BI)과 재무부 산하 자본시장감독청(Bapepam)이 관리·감독하면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금융감독이 어려움.

ㅇ 특히 마이크로 금융이 비은행 금융산업임에도 은행간 중개금융인 특징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Bapepam과 BI 모두 상호간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은행 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의 역할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민영은행에 비해 국영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이 적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독체계가 요구됨.

■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는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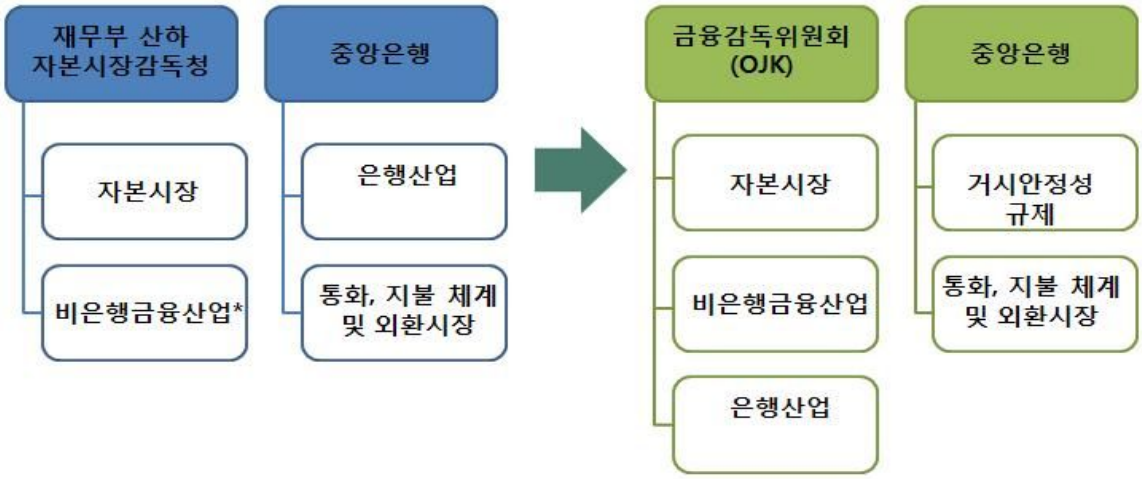
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

가. 주요 내용

■ 기존의 재무부 산하 자본시장감독청(Bapepam)이 담당한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과 중앙은행(BI)에서 담당한 은행산업 규제 및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전하여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감독이 가능하도록 함(그림 4 참고).

○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은행산업에 대한 감독업무 대신 거시안정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설립에 집중할 예정이며, 통화 및 지불체계, 외환 관련 규제감독 업무는 이전하지 않고 계속 수행함.

그림 4.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기관의 변화



주: * 비은행금융산업은 연금, 보험, 벤쳐캐피탈, 보증기관 등의 금융기업을 포함함.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 인도네시아는 2011년에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해 왔음.

- 인도네시아 상원(DPR)은 2011년 11월 22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법률 21호를 통과시켜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 법률을 2013년부터 발효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설립을 준비함.
- 2012년 연말에 재무부 산하 자본시장감독청의 자본시장 감독업무를 이전하였고, 2013년 연말에 중앙은행의 은행산업 규제 및 감독업무를 이전하는 일정이 확정되어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회는 2011년도에 약 1억 6,900만 루피아(약 1만 7,000달러)의 예산을 책정함.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위해 2012년 6월에 의회 은행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의장을 선출하고, 이사회를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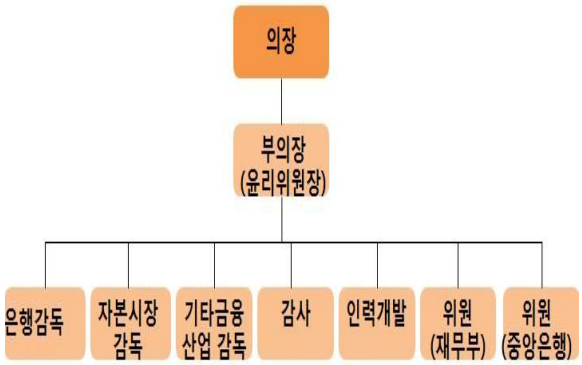
- 이사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하여 은행산업 및 비은행산업, 자본시장 등 각 분야의 감독 담당인 5인과 행정 관련(감사, 인력개발) 이사 2인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됨(그림 5 참고).

ㅇ 부의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윤리위원장을 겸임함.

- 이사회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이 기관의 인적 개발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해 책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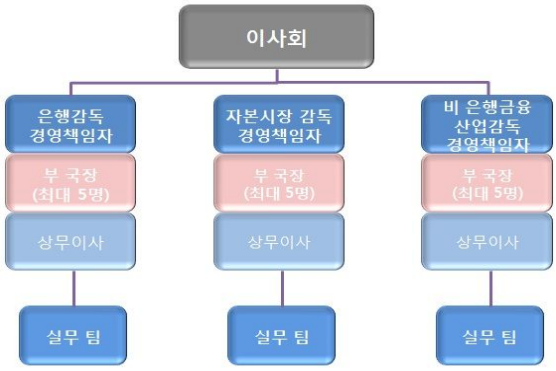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에 따라 향후 실무담당조직이 구성될 예정임(그림 6 참고).

그림 5. OJK 이사회 구성



자료: 현지 언론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그림 6. OJK 조직도



자료: Rimawan Pradiptyo *et al.*(2011),"A bridge too far; the strive to extablish a financial service regulatory authority(OJK) in Indonesia,"MPRA Paper No. 23004.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본시장 및 비은행 금융산업,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포괄하며, 기존 금융감독기관인 자본시장감독청과 중앙은행보다 독립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의 역할은 금융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하고, 금융안정화 체계를 구축하며, 금융시장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활동이 체계적이고 공정한지 감독하고 금융서비스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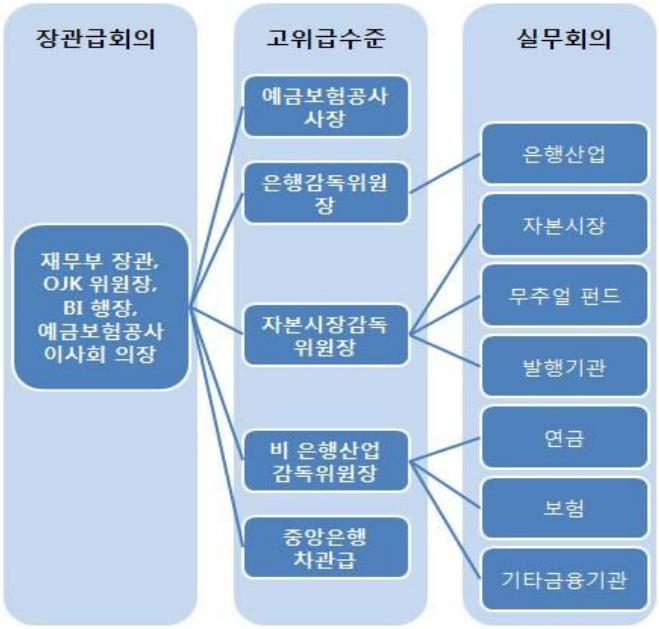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본시장감독청과 중앙은행의 금융전문가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고용하여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인도네시아 재무부, 중앙은행과 민간금융기업이 협력하여 매년 주관하는 금융체계안정화포럼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임(그림 7 참고).

ㅇ 금융체계안정화 포럼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위기관리프로토콜(CMP: Crisis Management Protocol)을 강화하여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임.

-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그림 7. 금융체계안정화포럼(FKSSK) 계획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 신설되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 및 감독 범위는 기존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범위보다 확장됨.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범위는 기존에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던 2,002개의 은행과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받던 약 1,670개의 금융기관 외에도 비은행 마이크로 금융기관 5만 6,504곳을 포함함(표 1 참고).

표 1.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범위

구분		분류	기관 수
은행산업		대형 은행	42
		중소은행	79
		샤리아은행	169
		지방은행	1,712
비(非)은행 산업	자본 시장	보험	144
		주식시장	499
		채권 시장	184
		증권사	158
	비은행 금융산업	전당포	1*
		연금	406
		파이낸싱	212
		벤쳐캐피탈	66
마이크로 금융		비은행 마이크로 금융기관	56,504
총 계			60,176

주: *는 공식화된 통계에 집계된 수임.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재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3. 전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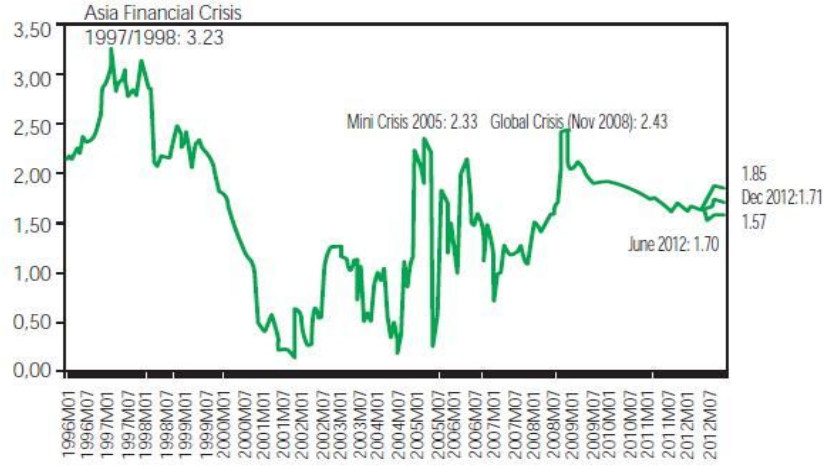
가. 전망

■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융안정성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성지수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금융안정성이 꾸준히 강화됨(그림 8 참고).

○ 인도네시아 금융안정성지수는 1) 소비자 물가지수, 2) 투자, 3) 각 은행 사업계획서(BBP: bank business plan), 4) 재정지출, 5) 은행산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6) 무수익여신율, 7) 국제금융시장 환경, 8) 대외무역의 여덟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지수화한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금융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함.

그림 8. 인도네시아 금융안정성지수(1996~2012년)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2012), *Financial Stability Review No. 19.* (September)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전망한 금융부문 '국제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은 당분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의 금융 부문은 태국, 말레이시아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분야도 있지만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고).

표 2. 아세안 주요국의 국제경쟁력지수: 금융부문(2012~13년)

분야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금융서비스 이용도, 1-7 (best)	4.30	4.32	4.89	4.76	5.08	5.76
금융서비스 용이성, 1-7 (best)	4.18	4.05	4.67	4.38	4.89	5.52
현지 자본시장 파이낸싱, 1-7 (best)	2.51	3.73	3.98	4.41	4.32	4.90
여신 기준, 1-7 (best)	2.75	2.45	3.03	3.91	3.48	4.47
벤처캐피탈 이용도, 1-7 (best)	2.67	2.31	2.58	3.67	2.86	4.13
은행 건전성, 1-7 (best)	4.80	4.54	5.57	4.48	5.62	5.89
주식거래 규제, 1-7 (best)	3.55	3.56	4.25	4.40	4.73	5.44
법적타당성, 0-10 (best)*	8.00	8.00	3.00	3.00	4.00	10.00

자료: WEF(2011), 「GCI 2012~13」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 인도네시아 재무부도 금융 부문이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함(표 3 참고).

표 3. 인도네시아 산업별 성장률

분야	2010	2011	2012		2012*	2013*
			1분기	2분기		
농업	3	3	4.3	3.7	3.0 - 3.5	3.0 - 3.4
광업	3.6	1.4	2.8	3.1	0.7 - 1.1	0.8 - 1.2
제조업	4.7	6.2	5.7	5.4	6.0 - 6.4	6.1 - 6.5
전기, 가스 및 물 사업부문	5.3	4.8	5.2	5.9	5.5 - 6.0	6.1 - 6.5
건설업	7	6.7	7.2	7.3	7.5 - 8.0	8.6 - 9.0
호텔 및 관광	8.7	9.2	8.3	8.9	8.7 - 9.2	9.1 - 9.5
유통, 통신	13.4	10.7	10.3	10.1	9.9 - 10.4	9.1 - 9.5
금융, 임대사업 서비스 등	5.7	6.8	6.3	7	6.4 - 6.8	6.5 - 6.9
서비스	6	6.7	5.5	5.7	6.4 - 6.8	6.2 - 6.6
GDP	6.2	6.5	6.3	6.4	6.1 - 6.5	6.3 - 6.7

주: *은 전망치.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 그러나 단기적으로 1) 금융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및 금융전문가 부족으로 효과적인 금융감독의 어려움, 2) 금융감독 인력교육 및 훈련비용 증가, 3) 제도적 확립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 통합에 따라 기존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반 시설 이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추가로 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금융기반시설 보완도 필요함.

-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추가로 관리、감독할 8만 6,504개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파견할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금융전문가가 크게 부족하므로 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움.

ㅇ 신규 채용된 직원 교육 및 훈련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설립과 함께 금융체계 내의 금융기관 지원을 병행해야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인도네시아 주식거래소(BEI), 인도네시아 증권수탁센터(KSEI), 인도네시아 증권보험조합은행이사회(KPEI)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동반해야 함.

- 예정된 금융체계안정화포럼(FKSSK)의 정례화로 금융감독위원회와 타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함.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금융전문가가 부족함에 따라 한국정부가 과거에 시행한 금융감독 관련 인력 개발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발전시킨다면, 양국간 좋은 협력방안이 될 수 있음.

- 한국 금융감독원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에 인도네시아 재무부 및 자본시장 감독청 직원을 초청해 통합 금융감독기법과 실제 운영사례에 대해 연수를 실시한 바 있음.

ㅇ 금융감독원은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운영해 오면서 겪었던 경험과 향후 인도네시아의 통합 감독기구 출범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지식을 공유함.

-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2010년 협력의 후속작업으로 인도네시아 금융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 금융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과거 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편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체계 개편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책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양국 정부간 금융협력이 지속된다면, 향후 한국 금융기관들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임.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우리 금융기관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인도네시아 은행지분 보유를 40%의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율 80%의 상한선을 둔다고 발표함.
- 최근 논의되는 인도네시아 은행법 개정안은 현지 지점을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은행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ㅇ 우리 금융기업의 본사 입장에서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현지 지점이 현지 법인으로 전환되면 조달해야 할 자본 규모가 커져 자본조달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ㅇ 또한 인도네시아 은행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금지에 대한 규정이 발효되면 현지 은행 여러 곳에 지분을 가진 외국계 금융기관은 이들 은행의 지분을 처분하고 한 곳에 집중하거나, 이들을 합병하여 하나의 은행을 신설해야 하므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의 대형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2)]

- 한국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정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현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함. KIEP

2) 관련 사항에 대한 현지 한국계 금융기업 담당자와의 인터뷰(2012년 2월 4일)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